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신 선 경 *

I. 들어가기

최근 들어 대학에서의 글쓰기 및 발표 토론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화, 과편화되어가는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이것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학문 능력의 저하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 대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양 교육의 강화를 시도하면서, 교양교육의 핵심 과정으로 글쓰기 과정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글쓰기와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문어적 추론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었고, 최근 들어 문제 제기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교육 담당자들 간에 글쓰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각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프로그램의 성격, 교육 주체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본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각 대학에서 행해온 글쓰기 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살펴보고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II. 우리나라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부터 국어는 초등학교에서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수과목으로 교수되어 왔다.¹⁾ 해방 후 10여 년간 대학 국어는 별도의 교재 없이 주로 고전 문장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주석을 가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고전 문장뿐 아니라 현대 문장을 갈래별로 나누어서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작문과 독본을 분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하기도 하며 대학 국어 교재를 편성하였고, 대학 국어 교육도 이와 함께 변화를 겪었다.²⁾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학 국어는 교양 국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의 대학 국어의 교육 내용이 국문학과 국어학 영역의 교양 지식에 관한 것으로, 고등 국어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 통용되던 글쓰기 지침서들은 전통적인 수사학의 관점에 따른 표현론에 근거하여 글쓰기를 설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태준의 <문장 강화>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다룬 최초의 국어 문장 작법에 해당한다. 이 책은 고전적 수사학의 관점에서 문장을 논하고 있으며 언어 표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장 작법에 접근한다. 이 책은 글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어휘와 문장, 문장의 유형, 문체와 수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문장론을 다루고 있다.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언어의 표현과 기법에 근거하는 개성적 문체의 발견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글 쓰는 이와 읽는 이, 상황과 조건에 대한 논의와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작문 외적 요소로 다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문장 강화>와 같은 유형의 글쓰기 방법이 지니는 한계가 서서히 인식되어 문장론의 전문성

1) 제1공화국 시대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오기까지 국어과목은 역사, 철학, 반공 과목과 더불어 국책 과목으로 선정되어 필수 과목으로 이수되다가 이후 정부의 반공 정책 민주화 과정에서 국책 과목은 도구 과목으로 전환되었다(손용주 1995: 327). 대학국어도 이 시기부터는 학교에 따라 교양 필수가 아닌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겪는다.

2) 고영근(2002: 15) 참조

이 강조되고 언어학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지면서 작문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글쓰기 방법의 중심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 대학 국어의 교과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대학 국어에서의 글쓰기는 여전히 표현을 중시하는 문학적 수사에 지배를 받는 상태로 진행되었다.³⁾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국어를 교양 필수에서 교양 선택으로 전환하는 교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국어의 존재 여부가 거론되는 다급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대학국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교육 목표의 정립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되었다. 대학 국어가 국어국문학이라는 개별 분야에서 벗어나, 좀더 실용적이고 다른 학문 활동에 기초가 되는, 기초 과목 또는 도구 과목으로서의 언어 교육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학은 학문적 글쓰기, 문어적 추론 등을 위한 글쓰기를 대학 국어의 교과 내용에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1994년 새롭게 개편된 서울대학교의 <대학국어 작문>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글쓰기가 단순한 문장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언어 수행 능력의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쓰기의 접근은 여전히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교과 과목의 전반적 활동이 소논문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학술적 글쓰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⁴⁾ 교과 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한 지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글쓰기의 전체적인 틀은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을 따라 자료의 이해와 활용, 개요 짜기, 주제문 작성,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주석 달기와 참고 문헌 제시 등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이 실용적 지식을 전수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인 양성 기관으로 변모에 가는 시대에, 학문주의를 지향하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학에

3) 권영민(2003: 8) 참조

4)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한 1994년도 개정판 <대학국어 작문>의 목차를 살펴보면, 첫째 단원: 대학생활과 학문, 둘째 단원: 연구 자료의 이해와 활용, 셋째 단원: 작문의 절차와 방법, 넷째 단원: 논문 작성의 실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와서 비로소 본격적인 글쓰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초보적 단계의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개인적 흥미, 필요성, 동기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그리고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학문적 글쓰기를 강요하는 억압적인 글쓰기 교육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바른 문장 쓰기 및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기능 교육을 대학 글쓰기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⁵⁾ 사실상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저지르는 문법적 오류의 상당 부분은 언어 능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언어 수행 과정에서의 실수인 경우가 많다.⁶⁾ 예를 들어, 자신의 글에서는 상당수의 문법적 오류를 저지른 학생이 다른 동료의 글을 읽고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서 범했던 오류를 타인의 글에서 찾아내고 교정해 내는 경우가 허다하며, 한 편의 글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범하던 오류를 다른 부분에서는 범하지 않는 예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쓰게 되는 글의 종류, 사용하는 수사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문법적 오류의 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글에서의 오류의 양에 비해 설명이나 논증, 보고 등 공식적 글에서의 오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로 쓴 글에 비해 타인에 의해 주어진 낯선 주제로 쓴 글

5) 최근 공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해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표현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이다. 글쓰기의 초보 단계에서 정확한 문장과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력 신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희모(2005: 121)도 글쓰기를 도구 과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표현력 신장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쓰기 학습자의 전공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실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6) Neilson(1979)는 성인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수행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인 필자들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할지라도 글쓰기 과제에 대한 인지적인 요구가 낮았거나 이례적으로 어려울 때, 언어 수행에서 문제를 드러낸다는 결과를 얻어 낸 바 있다.

에서의 오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이 범하는 문법적 오류는 문법 지식의 전수나 꼼꼼한 교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상황, 주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글쓰기 경험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나 낯선 분야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어적 수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술적 글쓰기를 지향하는 글쓰기 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 경우 글쓰기 작업으로부터 글을 쓰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억압적 작업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학술적 글쓰기는 고등의 정신 작용을 요하는 글쓰기 중에 하나이며 전문적 단계에 이른 몇몇 학술적 전문가에게나 의미를 갖는 좁은 범위의 글쓰기 방식이다. 글쓰기의 초보자인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한 분야의 전문적 글쓰기에 대한 지식 전수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명료화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언어활동을 매개로 학생들 스스로가 상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있는 후에 자신이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의 글에 대한 문어적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⁷⁾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대학 국어라는 이름으로 국어국문학과와 주관 하에 진행되어 오던 글쓰기 수업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과 같은 철학, 심리학, 사회 과학, 더 나아가서는 자연 과학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을 맺으면서 학제적인 과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몇몇 대학들이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대학 차원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자와 철학, 사회 과학, 교육학 전공자를 담당 교수로 하는 학제적 기초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 과목을 개편하였으며⁸⁾ 또 다른 일군의 대학들은 대학 입학생

7) 기초적 글쓰기 과정을 이수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글쓰기에서는 학술적 글쓰기가 강조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8) 예를 들어, 동덕여자대학교의 <독서와 토론>, 숙명여자대학교의 <발표와 토론>.

들의 학력 저하 현상과 관련하여 기초 교양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초 교양 과정을 강화하면서 대학 국어의 교육 내용을 글쓰기 중심으로 개편하여 핵심 기초 교양 과목으로 강화하였다. 이들 대학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어국문학과 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강좌를 개설하는 등 모든 학술적 활동의 기초로서의 글쓰기를 강화하였다.⁹⁾ 이러한 추세는 국어국문학이라는 한 분야에 갇혀 있던 글쓰기를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였다는 면에서 긍정적 가능성을 갖는 반면, 이러한 접근들은 글쓰기의 중심이 되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면서 글쓰기의 이전 단계인 사고의 문제로 글쓰기의 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글쓰기는 사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언어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소통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의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사이의 합의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를 통한 글쓰기 공통의 목표와 지향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글쓰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그 목표와 방법에 있어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텍스트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학문적 글쓰기에 활용될 수 있

<글쓰기와 읽기>, 가톨릭대학교의 CAP(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 등의 과목이 이에 속한다.

9)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학부 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연세대학교의 경우, 3학점 학부 기초 과목으로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였고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글쓰기의 기초>,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기술보고서 작성과 발표> 중 2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대학 산하의 기초교육원을 세워 주당 4시간의 교양 필수 과목인 <대학국어>를 통해 기초적 글쓰기 과정을, 이를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양 선택의 전공별 <글쓰기 세미나> 과정을 개설하여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는 기술과 설명, 그리고 논증 등 다양한 종류의 실용문과 이들 텍스트에 사용되는 수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달리 말해, 전통적 수사 방식에 따른 접근이다.¹⁰⁾ 이는 문법 교정식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는 접근 방식 중의 하나로 학술적 실용문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사법을 이용하면서 각 유형별 글쓰기의 요령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텍스트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과정적 지식을 실습하게 하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여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형식에 맞게 구성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의 문제는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을 사람의 개별성이나 주관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글 쓰는 이나 읽는 이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만 갖게 되면 언제라도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이상적 존재로 가정되며 글쓰기는 개인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즉, 글쓰기는 고정된 상황에서, 글 쓰는 이와 동일한 수사적 배경을 갖는 독자에게, 글 쓰는 이가 의도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독자, 글 쓰는 이가 글쓰기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 등 글쓰기의 의사소통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글의 형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화된 텍스트를 글쓰기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글쓰기, 그리고 그를 위한 진정한 수사학은 고정된 상황에서, 개인적 목적에 따라 쓰는 글쓰기의 문제뿐 아니라 가변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목적에 따라 행해지는 글쓰기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글쓰기에 있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무엇을, 왜 써야 하는가, 글쓰기를 통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법 교정식 접근이나 전통적 수사 방식에 따른 접근에 대한

10) 서울대학교에서 2004년에 개정된 <대학국어> 교재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교재의 목차를 소개하면, ‘1. 대학생생활과 글읽기, 2. 글의 개요 작성하기, 3. 글의 요약문 작성하기, 4. 대학생생활과 글쓰기, 5. 정의하기, 6. 분류하기, 7. 비교하기, 8. 분석하기, 9. 서술하기, 10. 논증하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대안으로 주제 중심의 접근이 시도되기도 한다. 주제 중심의 접근은 크게 이념적 접근과 고전 강독 중심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념적 접근은 글쓰기나 말하기 교육에서 정치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을 주제로 다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론이나 글쓰기를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다.¹¹⁾ 이러한 접근은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논쟁점을 찾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의 한 예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방식을 글쓰기에 도입하는 예나 쟁점 중심의 글쓰기 등을 들 수 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정치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을 찾아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학생들로 하여금 추론하고 글쓰기를 통해 다룰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은 논쟁점 발견의 용이성이라는 유익을 갖는 반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해결에 미숙한 학생들이 사회적 갈등에 노출될 때, 저널리즘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미 발표된 기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갖게 된다는지 혹은 부정을 위한 부정 즉, 모든 사회 현상을 비판적 태도로 해석하는 편향된 사고방식을 학습 받게 될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개인적 취향을 가진 미숙한 학생들은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의 원인을 나름대로 추론하는 대신에 입장을 달리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블로그의 기사들을 편집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의 방식으로 글쓰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고전강독을 중심으로¹²⁾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는 접근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쓰기에 주어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글쓰기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 지식의 습득이나 글쓰기 과정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11)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시사적 글쓰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한 예로 강준만(2005) 참조.

12)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과목은 고전과 강독이었다. 고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토론 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영안(2002)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지닌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에서 글쓰기는 그것 자체의 목적으로보다는(reading-to-write) 읽기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로, 이념적 접근과는 달리, 글쓰기를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발견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들도 있다.¹³⁾ 글쓰기의 출발점을 자신에게 두고 개인적이고 사적이지만 학생들 각자가 안고 있는 개인적 문제들을 돌아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예로는 글쓰기의 시작을 자기의 역사 쓰기, 가족사 쓰기에서 시작하거나, 인간 본성에 관한 고전 작품을 읽고, 그와 관련된 마인드 맵을 그려 보면서 자신의 무의식 속의 문제들을 끌어내고 그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¹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언어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글쓰기 초보자들로 하여금 글쓰기 과정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논의의 쟁점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설득과 소통이라는 확장적 활동보다는 서술과 표현이라는 개인적 소통 방식으로 글쓰기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¹⁵⁾ 이러한 접근 방식의 글쓰기가 계속될 경우, 글쓰기 과정을 통해 요구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논쟁점을 찾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논증적 사고력에 대한 훈련이 글쓰기 과정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3) 2003년도에 새롭게 개편된 연세대학교 <글쓰기> 교재는 자아에 대한 성찰을 글쓰기의 시작으로 구성하고 있다.

14) 이는 요즘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셀프 리더십 훈련과도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다.

15) 이러한 접근은 문어적 추론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글쓰기 지도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문어적 추론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에서는 글쓰기의 동기 유발 단계에서 한두 번 시도하는 것으로 그칠 글쓰기의 접근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Piaget를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은 아주 어린 나이에 형성된다고 해도 문어적 추론 능력은 훨씬 뒤늦은 시기에 형성된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Potter(1970)은 공식적인 글과 비공식적인 글을 실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나이를 대략 15세 전후로 추정한 바 있다.

네 번째로, 모든 글쓰기의 바탕에는 논리적 사고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글쓰기 교육을 논증적 추론 교육으로 인식하고 글쓰기의 과정을 사고 능력의 계발 과정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인 논증적 접근 방식이 있다. 이것은 최근 글쓰기가 학제적 분야로 이해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접근 방식으로 글쓰기를 통해 추론과 설득이라는 의사소통의 중추적 활동을 훈련함으로써 학문적 성취는 물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감상 위주의 문학적 글쓰기에 편중되어 있던 글쓰기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교육 현실에서 논증적 접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논증이라는 논리적 사고의 한 방식이 글쓰기에 도입되면서 글쓰기 활동에 포함되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을 논증문이라는 글의 형식으로 획일화 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¹⁶⁾ 글쓰기가 사고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쓰기와 관련하는 사고는 논리적 사고에 국한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글쓰기는 사고의 문제일 뿐 아니라 표현과 관계의 문제이며,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증적인 글이 아니라고 해서 글쓰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논리적 글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고 개인의 혹은 어떤 집단의 고유한 소통 방식을 교정하도록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은 교정이 아닌 학생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언어 구사력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담론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논증적 접근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철학적, 논리학적 논리는 언어적 논리와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적 논리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수용 가능성의 문제이며 정도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에서 논리적 오류나 형식 논리학적 원리를 의사소통 과정에 철저히 적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적 의사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

16) 대학 입시에 논술 쓰기가 도입된 후, 학생들은 논증적 글쓰기에 매우 익숙해 있으며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글쓰기는 매우 취약한 반면, 주장과 근거식의 논증적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행해 낸다.

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IV.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의사소통적 접근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접근 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글쓰기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은 지적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전제와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반드시 옳은 글쓰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전제이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부족한 글쓰기의 지식을 전수하고 채우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모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이성적 존재이다. 단지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글쓰기를 실제적으로 해본 의사소통의 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글쓰기의 다양한 상황에 놓여 본 경험도 적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글을 매개로 하여 마음을 나누어 본 경험도, 글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던 경험도 적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은 수사학적 지식의 전달이나 일정한 수사 방식에 대한 강요가 아닌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하여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상황과 관련된 학생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설득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쓰는자와 읽는자 사이의 배려와 이해에 대하여 체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담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글쓰기는 글 쓰는 이와 읽는 이, 그리고 그들 간에 소통되는 메시지와 전달 매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제삼의 청중 등, 의사소통의 기본 모형의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중심으로 각 상황에 따른 맥락 지식을 익혀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성공적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앞서 소개된 글쓰기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아우르며 행위를 통해 체득해 나아가야 할 삶의 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글쓰기 강좌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강좌 중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강좌이다.¹⁷⁾ 따라서 대학에서의 글쓰기 수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사이에 질문과 대답 즉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강의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야 하는 일방적 지식 전수와 교정, 평가의 방식 대신 쌍방향 대화, 설득과 이해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글쓰기 수업의 현장이다. 글쓰기 수업에서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왜곡 없이 표현할 수 있고 타자의 생각이나 견해를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이 활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 교육에서 고전적 수사학의 취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글쓰기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이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수사법을 구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공동체든 그것을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해관계에 얽히게 될 때, 자신도 언제든 지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교육 참여자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해온 방식에 따라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문제 상황에서 언제든 지 보편성과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으며 글을 쓰는 행위, 혹은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자신이 쓴 글쓰기를 평가할 정답 혹은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다.¹⁸⁾ 따라서 학생들은 (때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조차) 글쓰기 수업을 통해 어떠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과 수사법에 대한 습득을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나 수사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

17)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 글쓰기 강좌의 정원은 25명에서 30명 선으로 조정되고 있다.

18)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무력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쓰기는 자신의 글을 이해 가능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지식과 의사소통의 맥락에 관한 지식,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 및 글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 등을 학습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들 지식 중 내용 지식이나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은 글쓰기 교육에서뿐 아니라 국어과를 포함한 다른 교과목에서 전수될 수 있는 것인 반면, 맥락적 지식과 과정에 관한 지식은 구체적 의사소통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체득되기 어려운 지식이다. 최근 7차 교육 과정으로 교육 제도가 개편되면서 글쓰기 지도의 교과 내용은 과정 중심의 글쓰기로 대폭 개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과정적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로 대학에서 글쓰기에 임하게 된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글쓰기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80% 이상이 독자와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²⁰⁾ 이러

19) 글쓰기를 위한 기본 지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학문 영역 또는 교과에 대한 지식
 - (2) 해당 학문 공동체가 흔히 사용하는 논증 및 탐구의 방법에 대한 지식
 - (3) 각 학문 영역 또는 교과 영역의 글쓰기 과정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지식
 - (4) 해당 영역에서 글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 20) 글쓰기를 지도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②번 항목을 선택한 교사가 65명에 이르렀다.
- * 글쓰기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 중 어떤 지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 | | |
|----------------|-----------------|
| ① 내용 지식 | ② 맥락 지식 |
| ③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 | ④ 글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 |

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에 막 입학하는 학생들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 중에서도 특히 글쓰기의 맥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 개인, 개인이 서로 다른 수사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그들이 속하게 될 학문 분야나 직업, 그 외의 사회적 공동체에 따라 사용되는 수사학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글쓰기의 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속하게 될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인정되는 권위가 다르며, 권위가 인정되는 방식 즉, 추론의 절차나 양식,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 내지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수용과 이해, 더 나아가서 합의를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이에 대한 수용과 합의의 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글을 통한 설득과 합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훈련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과 합의, 그리고 이를 위한 설득 행위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수사 방식을 구사하며 갈등한다고 할지라도 강압이나 다른 물리적인 힘이 아닌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글쓰기와 설득의 담론인 수사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인문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담화 행

위, 담화 장르, 담화 공동체, 의사소통의 장면, 인지 내용의 언어적 구성, 지식의 수사학적 구성 등과 같은 수사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학문 행위와 그것들에 있어서의 수사학적 접근은 글쓰기를 통해 실현된다. 현대 수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언어 사용은 그 의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하는 도구로서, 설득적이며, 윤리적인 문제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포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언어 사용,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 예인 글쓰기는 심리적 체계임과 동시에 대화에 바탕을 둔 사회적 체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접근 방식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의사소통 당사자 간의 다양성의 표현 및 수용이라는 수사학적 측면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아울러야 할 내용과 목표에 대한 토의와 방향 모색의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영안(2002),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 소나무, 15~24면.
- 강준만(2005),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 사상사.
- 고영근(2002), “국어학과 국문학의 통합과 확산”. 국어국문학 131호, 국어국문학 회, 1~25면.
- 권영민(2003), “국어 능력으로서의 글쓰기 능력”,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회의 발표요지, 국립국어연구원, 7~14면.
- 김승중(2003), “한국 대학 작문 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쓰는가?, 월인.
- 박우수·양태중 외 옮김(2003), 인문과학의 수사학 - 학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언어와 논증(John S. Nelson, Allan Mwgil, Donald N. McCloskey,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s - Language and Argument in Scholarship and Public Affairs*, 1987), 고려대학교출판부.
- 손용주(1995), “국어 교육 정책과 대학 교양국어”, 대구어문논총 13, 우리말글 회, 323~350면.
- 신헌재 외 옮김(2004), 구성주의 은유: 읽기, 쓰기, 의미구성의 이론(Spivey, N.N., *Constructiveist metaphor: Reading and Writing in the Making of Meaning*, 1997), 박이정.
- 신형기 외(2006),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 사이언스북스.
- 오형엽 옮김(2001),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James Crosswhite, *The Rhetoric of Reason: Writing and the Attraction of Argument*, 1996),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재승(2005), “작문 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이태준(1947/1988), 문장 강화, 창작과 비평사.
- 정병기(2005), 사회과학 글쓰기: 대학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희모(2001), “글쓰기 과목의 목표 설정과 학습 방안”, 현대문학의 연구 17.
- _____ (2004), “MIT 대학의 글쓰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 _____ (2005), “대학 글쓰기 교육과 사고력 학습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

- _____ (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정희모·이재성(2005), *글쓰기의 전략, 들녘*.
- 차호일(2002), “작문 이론의 교육적 접근”, *한국초등국어교육* 21집, 한국초등교육학회, 143~168면.
- 하병학(2002), “인문학 위기 극복의 한 모형으로서 학제적 교양 과목과 철학의 치열성”, *철학과 현실* 53권, 철학문화연구소, 186~194면.
- 한신일 외(2003),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1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91~119면.
- Neilson, Brooke(1979), “Writing as a Second Language; Psycholinguistic Processes in Composi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Potter, R.(1970), “Sentence Structure and Prose Quality: An Exploratory Study,” *In Teaching High School Composition*, ed. G. Tate & E. Corbet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